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친애하는 형제자매들과 친구들에게,

아래 세 장의 그림은 안식년(2014년) 초 나팔절 전날부터 홍콩 항구의 노아의 방주 실물 크기를 반영하여 50시간 동안 지속적인 예배 중에 동시에 그려졌습니다. 우리는 중국 본토, 대만, 홍콩, 미국 및 그 외 국가의 예배자들과 함께했으며, 이스라엘 팀도 이 특별한 순간에 동참했습니다. 세 장의 그림들은 동시에 완성되었습니다.

아래에는 이젤이 방에 설치된 순서대로 그림들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색상, 색조, 움직임의 유사성을 주목해 주세요. 우리는 이 그림들의 창작을 매우 예언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 명의 화가는 50시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세 가지 짐을 완벽하게 표현했으며,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순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 첫째, 시간의 긴박함과 모든 국가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다는 점입니다.
- 둘째, 예배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심성은 주님의 임재를 위한 장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스라엘의 위치입니다.

다음은 그림의 흐름을 따라 정리한 생각들로, 주님의 영으로부터 듣고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땅을 채우고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교화되고 도전받고 격려받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르니와 요닛 클라인
엠마우스 웨이, 이스라엘



Lilius Eithor

25 Sep 2014

Your Kingdom Come

시간의 본질

마지막 때입니다. 어둠은 하루하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 놀라지 마세요. 악이 홍수처럼 밀려 오고 온 땅에 어둠이 덮일 때, 주님이 일어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들이 우리 앞과 주 변에 있으며, 이는 곧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이 오고 있다는 한밤중의 외침이 시작되자 다섯 명의 처녀들은 더 이상 기름을 살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열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오고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기를 든 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의 문이 그 세대에게 닫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는 이 비유에서처럼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신 것들이 영원히 봉인되고 변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해 왔습니다.

전투의 본질

지난 20년 동안 광기가 말 그대로 지구를 휩쓸었습니다. 한때 더럽고 혐오스럽다고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과 걱정에 빠진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과 정부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이성과 진실을 포기하여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완고해졌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이스라엘에 관한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초래된 가장 분명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은사나 기름부으심 또는 계시 등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만이 이 정도의 어둠을 물리 칠 수 있습니다.

예배와 주님의 임재

예배는 제단 위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선언한 대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무언가를 얻거나 시간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정의에 따르면 예배는 예배자가 "사라지는" 순간이며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에 의해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예슈아)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둠과 맞서 싸우는 가장 높고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위한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인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대기를 들고 손을 들고 지시하셨을 때, 그는 우리에게 전쟁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명과 장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돌아오실 장소입니다. 이 요약의 목적을 위해 열방의 빛이 되는 측면과 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빛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눈이 정상적으로 기능할지라도 빛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상 눈이 멀게 됩니다. 열방의 빛이 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특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는 것을 방해하는 무언가를 제거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 시각 능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이해를 주는 통찰력과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동자'를 뜻하는 이스라엘은 몸에 들어오는 빛을 조절하는 눈의 동공이 됩니다. 동공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세부 사항을 볼 수 없습니다. 동공이 기능하지 않으면 눈이 멀게 됩니다. 이러한 정도의 시각적/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몸은 영혼과 영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령을 위한 적절한 거처를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의 부름과 위치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기 위해 모든 열방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거부가 열방의 화해를 이루었다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찬양 받으실 때까지 주님을 부르는 자들은 쉬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과 이사야 62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팎의 열방을 향해 그분의 왕국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신 내용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들은 그분의 좋은 아이디어나 가능한 선택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갈망에 대한 주요 지시, 전략적 관점, 친밀한 계시로 제시됩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권위의 막대기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의 팔이 지쳐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서 우리의 소명을 다할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최전방(Front line)의 성격과 위치

어떠한 형태로든지 모든 전투에는 최전선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된 군대에는 지휘관과 일종의 지휘 및 통제 센터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의 큰 갈등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데는 많은 시간 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왕좌'를 위하여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은 어둠의 왕국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이스라엘이 깨어나지 못하게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소통에 있어서는 우리의 위치나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과 어둠의 싸움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적의 본부는 시온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의 시대를 살펴보고, 전투의 본질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의 주요 전략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대의 두 주요 부대를 검토하고 각각의

역할을 고려했으며, 적의 본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군대의 상태를 평가하고 주님의 전투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상태

어둠과 악의 주요 세력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적 분위기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주요 전술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의 첫 이름을 가진 사람의 영적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됩니다.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노아의 저주받은 손자의 이름으로, 문자 그대로 '굴욕'을 의미합니다.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땅의 백성들은 바벨탑 건설 당시 민족들이 가졌던 통합을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최근 가자 전쟁의 전반적인 양상은 이 땅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꽤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해, 이스라엘 군대는 적의 정교함과 헌신에 놀랐고, 이런 종류의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으며, 전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는 그들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의 사람들의 정신 상태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주민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단순히 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생각했고, 가장 중요한 명령인 땅을 정화하고 준비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신과 태도는 미묘하지만 효과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가오는 어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의 상태

이스라엘에서 교회의 존재 또는 부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자, 상처받은 자, 부서진 자들을 위해 많은 선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친밀감과 인식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서구 교회의 많은 부분을 관찰해보

면, 마치 잠들어 꿈을 꾸면서 그 꿈 속에서 깨어 있는 것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일깨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은사와 체험을 인격보다 중요시하여 많은 부분에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태도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지와 함께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고 확신합니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경시하는 것과 어둠의 세력이 유대 민족을 파괴하려는 "합법적 권위"를 얻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영적 맹목과 예수님에 대한 거부, 그리고 현재 교회 내에서 유대적 요소가 부족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한새사람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신성한 질서 있는 관계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12절은 한때 약속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소외되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은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룹니다: "참감람나무의 가지 일부가 꺾이고, 돌감람나무인 당신이 그 자리에 접 붙여져 참감람나무의 뿌리와 함께 그 풍성한 양분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 대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설령 자랑한다 해도, 당신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당신을 지탱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이스라엘도 가지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원래의 가지들 사이에 접붙여졌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들 사이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면 실제로 접붙여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접붙여져 하나가 되었다면, 원래 가지들의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형제이며 **한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마태복음 24:37-39)”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입니다. 홍수 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릴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자의 오심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마태복음 24:37- 39)..

노아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과소 평가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시작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요소들을 언급하셨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100년이 걸렸을 때, 가족 외에는 아무도 자신의 삶이 창조주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홍수 당시 살아있었던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가능한 연구에 따르면 수십억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면하신 현실 중 하나였다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은 인간의 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의도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고, 마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 서 은혜를 찾았습니다.(창세기 6:5-8)1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들이 창조주의 마음에서 나온 진실이라고 믿나요? 아니면 요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과장된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끊임없이 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단 한 사람만이 의로울 수 있었을까요? 창 조주께서는 한 사람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은 항상 모든 이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하셨다는 말씀을 너무 쉽게 지나치지 맙시다. 그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마치 그분이 놀라신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억 명의 영혼 중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정도, 의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논의가 "구약의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기준과 행위는 당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거듭난 신자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수십억 명을 멸하시고 단 여덟 명만 구하신 분으로 알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들은 오직 그분의 거룩하심의 틀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왕좌 주위의 천사들은 "사랑, 은혜, 자비, 친절, 오래 참으심"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인용하고 있습니까? 슬프게도, 아 너무나 슬프게도, 우리는 위험할 정도로 가볍게 여기며 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당 신이 그분의 인자하심에 머문다면 당신에게는 인자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잘 려나갈 것이다." (롬 11:22)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하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완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눈에 무엇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에 그칠 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10:26-31).

성경 창세기 2장 16-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첫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엄격함, 거룩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낮은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뱀이 여인에게 접근하며 던진 첫 질문은 무해해 보였지만,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어지는 사탄의 첫 선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갖게 한 문을 열었습니다. 이 거짓말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현실적 개념을 없애고, 단순한 경외심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만약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라면(시편 111:10),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혜도 없고 기반도 없는 것입니다(잠언 3:19).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시편 24:3)



예배

예배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이며, 전도는 예배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 이러라."(마가복음 3:13-15)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애를 썼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과 죽어가는 이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세상을 채우는 영적 맹인으로 인한 슬픔과 비통함 속에서, 메시아를 따르

는 많은 이들이 무력감과 좌절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책과 세미나, 모든 강좌와 녹음 자료, 그리고 모든 기술과 방법, 프로그램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대체로 1세기 교회의 평범한 신자들이 보여준 영적 삶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초점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열매를 찾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요소만으로도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으며,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자원, 그리고 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인간의 마음이 품은 모든 희망과 꿈, 그리고 갈망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수단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을 우리와 함께 지킨다면, 그분께서 일하시고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뭇은 단지 전리품을 창고에 모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의식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3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목이 뻗뻗한 백성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길에서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분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로 너무 가까이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예배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섬세한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에도 분명 그 자리가 있지만, 우리가 순수한 예배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선교 지역'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해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지만, 음악과 노래가 가장 흔히 떠오르는 것이긴 하나, 예배는 본질적으로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예배를 궁극적인 전쟁의 형태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 군대는 나팔을 부는 가수들, 음악가들, 또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출애굽기 17:10-11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 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 갔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 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첫 전투에서 하 나님은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급진적으로 신 뢰해야 합니다 - 특히 적의 조롱과 위협, 공격에 직면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늘의 승리의 열쇠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대가 가까워지고 어둠의 왕국에 대한 긴박함이 커질수록 우리는 악의 세력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맞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만이 승리를 가져올 때가 올 것입니다.

다윗 왕의 생애에서 우리는 예배와 전쟁의 결합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은 전형적인 예배자이자 전사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두 요소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음악과 예배의 힘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사탄이 '그룹'이었으며 그 자체로 음악의 근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내부에는 관악기와 현악기, 그리고 음색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사탄이 음악으로 보좌를 덮고 하늘의 '예배인 도자' 역할을 했던 존재로 여깁니다. 말씀 다음으로 음악은 아마도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도구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빛의 주님께 맞춰져 있을 때, 우리의 소리는 어둠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보좌를 만들고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나는 영광 앞에서 어둠은 사라집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총알과 음표로 싸운다는 개념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작이 없다는 것이나 물질이 존재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은 예배와 경배로 응답합니다. 영적인 어둠이 영원히 사라지는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볼 때처럼 반응하면 어둠은 빛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간은 영원으로 바뀌며, 주님의 임재를 위한 장소가 준비됩니다.

위대한 이방인 알리야

이스라엘과 관련된 대부분의 신자들은 '알리야 하다'가 이스라엘로의 이민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재건하고 백성을 조상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 그 땅에 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과 본성이 이 땅에 나타나는 핵심에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고려할 때, 이 알리야에 대한 요구는 생사가 걸린 절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알리야"라는 단어는 "올라가다...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6절에 처음 등장하며,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 등장은 창세기 8장 20절의 "노아가... 제단 위에 번제를 드렸다"입니다. 제물과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왔으며 "올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올라"로, 이 동사의 여성 3인칭 단수형입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이 제물을 태울 때, 연기가 주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 신규 이민자도 '올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우리의 상태가 희생 제물에 비유되는 것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특히 성인이 되어 이스라엘로 이주한 경험은 주님의 불에 휩싸이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국가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존재의 핵심 측면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축복, 저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계시가 먼저 유대인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소명을 다할 때 전 세계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주하기 2년 전인 1992년, 주님께서는 그분의 귀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땅을 원하신다는 인상을 주셨습니다. 이는 다소 자기중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알기에 그분의 동기가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라는 부담을 느낍니다. 시편 132장 3-5절에 기록된 다윗의 시는 예배자의 가장 깊은 열망을 표현합니다: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와 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고 그 땅이 예배로 가득 차는 것의 영향을 고려할 때, 어둠의 세력이 이러한 일들의 실현을 막으려는 노력에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알리야의 본질적 의미를 예배와 연결 지은 우리는 이제 이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들에게 알리야를 한다는 것은 시온의 불 한 가운데서 살기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신자들, 즉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에게 우리는 알리야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예배를 위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땅을 보기 위해서도, 백성을 보기 위해서도,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도, 심지어 주님과 만남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희생입니다.

스가랴 3장, 이사야 40장, 이사야 62장, 로마서 11장(많은 참고 구절 중 일부)에서 성령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사역과 길 예비를 하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따라서 영적 알리야를 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알리야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진정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행해지는 일은 물리적 세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예배하러 오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 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독립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상상하기 쉬운 그림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과 땅 사이에 통로가 열립니다. 주님의 빛은 유대인의 육체적 귀환과 영적 구원을 방해하려는 어둠을 흩어버리거나 밀어냅니다.

영적이고 헌신적인 몸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일상생활의 모든 압박과 요구로 인해 우리의 "손"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들어 올리는 삶을 완전히 실천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여러분은 이삼 주 동안 일상의 루틴을 내려놓고 주님께 100% 헌신하며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간단한 전략입니다. 만약 각국의 단체들이 이 원칙을 이해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 땅에 항상 헌신적인 예배팀이 있도록 하는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팀을 수용할 집을 구입하고, 그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밴을 마련하며, 예배자들이 비행기 표, 일상적인 식사, 그리고 기름 값만 부담하도록 기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동안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수년간 수천, 수만 명의 이방인 신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땅에서 봉사해 왔습니다. 특별한 경우, 일부 이방인들은 나라에 머물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기도 합니다(일반적으로 유대인 조 부모가 한 명 이상 있는 유대인의 후손만이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부는 학생 비자로 잠시 오거나 단체에서 일하며 최대 5년 동안 자원봉사 비자를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보통 3개월짜리 관광 비자로 입국하며, 비자 갱신을 위해 출국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땅에 짧게 머물 수 있지만, 삶의 일부만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방인 알리야"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유한 방향과 관점을 고려할 때, 여러 나라에서 온 예배자들로 구성된 "이방인 알리야"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임재로 땅을 채우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들이

1985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우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신자들이 왕국의 일을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소외

감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멈추길 원하신다거나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89년 지역 사역자 회의에서 같은 계시를 받은 네 사람이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단순히 주님을 축복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감사, 그리고 경배를 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편안히 거하실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영원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의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위한 여러 통찰과 이해를 얻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를 인도했던 생각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보이신다면:

- 모든 주의가 그분께만 집중될 것입니다.
- 본질적으로 사람들 간의 소통은 없을 것입니다.
-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아무도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아무도 "하나님은 멋지지 않으신가요?"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우리의 초점은 오직 그분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있을 때

- 성경을 읽고 싶다면 말씀의 장과 절을 인용하지 않고 읽습니다.
- 노래하고 싶다면 그냥 노래합니다.
- 우리는 동기가 순수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조용한 시간"은 아니지만, 침묵도 괜찮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그분께 직접 말씀드립니다.

영원 속에서:

-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분위기는 보좌 앞의 유리 바다와 같습니다.
-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감이 없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

- 예배는 그분이 누구시며 이미 하신 일에 대한 응답입니다.
-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그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 우리는 충만함 속에서 그분과 교제합니다.
-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선물도, 기도도, 그 어떤 것도.
-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 사용되거나, 만져 지거나, 대화 하거나, 또는 그저 함께 있기 위해.
-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과 같습니다 (롬 12:1-2).

- 우리는 온전히 쏟아부어집니다... 심지어 낭비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 26:6-13).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 필요, 의제, 요청, 질문, 기대, 지정된 인간 리더십...
- 단순히 아버지와 함께 그의 자녀들로서 나아갑니다.

이러한 존재 방식은

- 하나님께 "임재의 장소"를 마련해 드립니다
- 하나님과 서로 간의 친밀함을 깊게 합니다
-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 몸의 투명성과 정서적 온전함을 세워갑니다
-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다윗 왕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가 보여준 예배의 모습, 특히 춤은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순간 온 백성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 앞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세우고 입증합니다.

성령이 처음 오순절에 부어졌을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이나 의제 없이 기다리고 있었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을 본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이 기다리던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의제 없이, 계획 없이, 지정된 리더 없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모른 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현실적으

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원 칙의 본질은 실현 가능합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서로에 대해 완전히 투명하고 모두가 그것을 아는 상태로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도 마음속에 다른 이에 대해 숨긴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며,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과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면, 점차 더 많은 이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곧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임을 알기 위해 **특별한 징조는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올 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매우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하는 것이 다가올 날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가능할까요? 선지자 다니엘은 우리가 직면할 어려운 시기를 언급하며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고 말 했습니다(단 11:32).



이스라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왕국의 열쇠를 주셨듯이,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방들이 있으며, 각 방에는 문과 열쇠가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의 위치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서 중요한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적 선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만약 우리가 메시아의 몸 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전략적 위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처럼(출애굽기 4:22-23), 우리도 동일한 저주 아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병자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치유받기 전에 먼저 자신의 필요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규례와 거룩함을 드러낼 백성을 찾으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으며(이사야 41:8), 그의 후손들에게 율법(토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 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롬 4:15)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바울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메시아를 위한 길을 준비하며 율법의 심판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모든 유대인들은 이 신성한 소명의 무게를 짊어졌으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과 어린 양의 통로였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마태복음 23:39)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사탄은 이스라엘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이스라엘에 집중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15절에서 "그들의 받아들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하며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파 라오의 군대를 멸망시키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신앙 공동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결국, 이스라엘 문제는 단순히 민족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명성, 주권, 전략, 그리고 그분의 의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모든 인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롬 15:8-9)

함께 걸어가기 위해 모든 교리적 세부사항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예 배에 관한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이 구절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만 그 온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번역본에는 보통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를 경시하는 자를 내가 심히 저주하리라." 이는 단순히 악한 말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바라거나, 공개적으로 저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합당한 축복이나 존경, 인정을 보류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만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저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전 세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반대한다는 점은, 그

들이 어떤 식으로든 저주 아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피도 하나님의 불변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결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31-46

우리는 예수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언급하신 이들이 실제로 그의 혈육인 유 대인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함의는 매우 중대합니다. "그들"이 이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두 그룹으로 나누십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즉 그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한 마리씩 나누시며, 가족이나 집단, 국가별로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는 이 형제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다른 그룹에 대해 이야기하시어, 이 형제들이 그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 중에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십니다. "구원받은" 이들과 대화하실 때, 그는 이 다른 그룹을 "너희 형제" 나 "우리 형제"가 아닌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만약 그들이 영적인 형제였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이들의 그룹에 속했을 것이고 다른 용어가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로 번역된 단어가 육체적 또는 영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에, 여기서는 오직 그의 혈육인 형제들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태복음 23: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 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당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계시를 주신 주된 목적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시기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이 문제가 각국 신자들의 우선순위 목록에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이 사탄의 패망의 시작이 될 것임을 알기에, 사탄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따라서 어둠의 세력이 총력을 다해 이를 막으려 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을 제물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6:7-13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제 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낭비하느냐?'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서, 이것은 누군가가 그에게 와서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순수하게 드린 유일한 기록된 사건입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62:1,6,7

"시온을 위하여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존재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가운데, 지역의 메시아닉 공동체만으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을 예배와 찬양으로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과 장소는 "한 새 사람"의 살아있는 현현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이 최후 전투의 중심이자 적의 마지막 요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였던 곳,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사야 9:1-2).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첫 제자들은 갈릴

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기적 대부분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활 후, 무덤가의 여인들은 천사와 주님 자신으로부터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곳에서 그를 만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마태복음 28:7,10). 그곳은 그가 물 위를 걸으 셧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으며,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하신 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곳보다 갈릴리에서 그의 평화를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략적 관점

성경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존재)의 계층 구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믿는자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관점으로 평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이와 관련된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예언적 계시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예수아가 다시 오시는 길목에서 마주하게 될 영적 세력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영적 지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이 일에 대해 증거해 주시기를 신뢰하며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 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속임수가 만연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장 교묘한 속임수는 진리와 비슷하게 보이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비롯된 원 칙, 진리, 예를 왜곡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만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를 "종교적 영"의 작용으로 이해하며, 이는 수백만 명의 영혼을 억압합니다. 이 영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퍼뜨리고, 자부심과 두려움을 통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어둠의 왕국의 목표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는 이 영의 본거지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최 후 전투의 중심지이며, 적의 마지막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아래에는 또 다른 강력한 영적 세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중심주의와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모든 종류의 욕망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이를 "그리스 정신" 또는 휴머니즘이라 부릅니다. 이 정신은 인간의

고양과 신격화를 추구하며,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 부와 명예, 지성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더 높아지려 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다른 사람들을 낮춤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이 세력의 중심지가 텔아비브 지역에 있다고 봅니다.

가장 약한 세력은 거짓 종교이며, 이는 세 가지 중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할 대상입니다. 거짓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영적인 것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경쟁심이 적고 내면의 삶에 집중합니다. 많은 경우 진리를 사랑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빛이 오면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의 견고한 진이 이스라엘에서는 갈릴리 지역에 있다고 인식합니다.

디베라와 대지구대

갈릴리 지역의 영적 역학을 살펴보면 몇 가지 연결점이 즉시 드러납니다. 하이파는 엘리야가 바알의 거짓 예언자들과 싸운 곳이며, 바하이(Bahai) 종교의 세계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츠파트(Tsfat 또는 Safed)는 유대 신비주의의 일종인 카발라(Kabala)의 세계 중심지로, 그 영향은 비유대인들에게까지도 미칩니다. 대부분의 열방의 예슈아를 믿는 자들은 티베리아를 갈릴리 바다와 예슈아가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행하신 기적들과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정통 유대교인들에게 티베리아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매년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유명한 랍비들의 무덤에 경배하기 위해 순례를 떠납니다.** 이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교는 토라와 탈무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탈무드는 랍비들의 사고, 해석, 우화들을 본질적으로 집대성한 것으로, 이들은 이러한 구전법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토라와 함께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실제 정통 유대교의 실천에서는 토라보다 탈무드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됩니다. 정통 유대교의 기초를 세우는 데 가장 영향력 있는 세 랍비들은 모두 티베리아에 묻혀 있습니다. 마이모니데스(람밤이라고도 불림)는 유대 율법과 철학을 미쉬나(탈무드의 일부)에 체계화하였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유대인의 두 번째 로마 반란을 지지하였고, 시몬 바르 코크바를 메시야로

선언했는데, 이는 예수아가 메시아라고 믿던 유대인들이 그들과 분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미쉬나에서 예수아를 가리키는 모든 언급을 제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쉬나의 익명의 “기적적인” 모든 저작물은 랍비 메이르 바알 하네스에게 귀속됩니다.

성경적 유대교만이 새 언약(New Covenant)의 기초를 놓습니다 (예: 예레미야 31:31 참조). **이 강조점의 이동, 즉 토라에서 탈무드로의 전환은 유대교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의 말로 옮기게 하였고, 본질적으로 거짓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역학 구조의 내면 작동 방식에 대해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하려는 핵심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토라에서 시작하지만 교묘히 방향을 틀어 결국에는 매우 기만적인 오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단층대(**The Great Rift Valley**) 는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는 시온의 자녀들과 그리스 자녀들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는 지리적 접점입니다 (스가랴 9:13 참조). 여기에는 지구상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가장 낮은 계곡인 요르단 계곡이 포함되며, 그것은 티베리아 중심을 지나갑니다. **탈무드는 헬라적/인본주의적 사고를 유대교의 중심에 두었고, 그 주요 예배 제단이 티베리아에 있습니다. 이 고대 도시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있도록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갈릴리 예배 네트워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북부에 예배자들의 네트워크를 세우라는 부담을 우리 마음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다른 지역과 회중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지역 단위의 모임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음악이나 예배 표현을 넘어서, 예배자로서의 개인적 삶을 넘어서, 그리고 교단의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 된 공동체(교회)가 참된 연합 속에서,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 인도자’가 행사하던 일반적인 통제를 내려놓음으로써, 무질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길을 참되게 예비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티베리아/요단계곡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사역단체에서 온 주요 예배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특정한 목적이나 지정된 리더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맡깁니다.

저희(Arni & Yonit)는 1992년에 뉴욕시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처음 8년간은 텔아비브 북쪽의 한 마을에서 살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텔아비브 중심부에 거주했습니다. 그 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주님은 우리를 예루살렘 외곽의 유대 광야(Judean Hills)로 인도하셨고, 2012년에는 여기치 않게 두 사람 모두 동시에 주님의 감동을 받아 티베리아 지역으로 옮겨 모닝스타 펠로우십(Morningstar Fellowship) 형제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우리가 행한 일들과 살아온 장소들, 특히 이스라엘로의 이민은 우리가 계획한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직접 함께 서도록 요청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 우리가 받은 전략적 이해와 통찰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글이 열방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히며,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는 이 마지막 때의 위대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와 관련된 더 많은 글과 생각들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emmausway.org

www.galileeworship.com

작성할 수 있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arni@emmausway.org

